



-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 2019년 12월 15일 · 가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30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민락동 성당



설립 2018년 8월 24일 전화 사무실 031-851-4628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51번길 7

제1독서 이사 35,1-6ㄴ.10

화답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이사 35,4부 참조)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야고 5,7-10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마태 11,2-11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리스도인의 기쁨



정중희 필립보 신부
야당 맑은연못 부주임

찬미예수님! 오늘 맞이하는 대림 제3주일은 ‘장미주일’ 또는 ‘Gaudete(기뻐하여라) 주일’ 이라고 하며, 오늘 전례와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쁨입니다. 오늘 입당송은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초대합니다. 이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에서 늘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살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기쁨이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기쁨이란 하느님 안에 있으며 하느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괴로움이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뜻할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기쁨의 뜻은 임마누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가까이 있다는 것이 바로 기쁨이며, 그 기쁨은 영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 더욱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한 기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기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 안에서의 참 기쁨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이 주님의 선구자

라는 정체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만들어가고, 기쁨이 나의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쁨을 이미 내 안에 머무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밖의 세상적인 것, 외형적이며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며 하느님의 영을 받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기쁨을 밖에서 찾고 있으며, 그러한 거짓 기쁨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형제들이여, 세상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죄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허영의 꽃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영원의 희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얼마나 오래 살든간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쁨 자체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상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하며 고통을 겪어낼 때 기쁨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며, 하느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

어떤 유산

거지네에 왕초가 병에 걸려 임종을 앞두고 되었다.

왕초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왕초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너희한테 나의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줄 테니 유감없이 받아라.”

병거지는 평소 귀여워하던 딸마니한테 물려주었다.

심부름 잘 다닌 연락책한테는 깡통 밥그릇을 물려주었다.

상납 성적이 좋은 내무반장한테는 거적을 물려주었다.

의리의 보디가드에게는 외투를 물려주었다.

모두들 유품을 받아 들고 좋아라며 떠나고 가장 사랑하는 따까리 혼자만 남았다.

왕초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주었다.

그 문서에는 관내 유명 부자와 유지들의 집안사람들 생일과 제사 날짜가 죽 적혀 있었다.

그러나 감복할 줄 알았던 따까리의 얼굴이 뜻밖에도 일그러졌다.

따까리가 문서를 북북 찢으며 말했다.

“왕초님, 왜 저를 있는 집에서 자식한테 재산 물림하는 식으로 대합니까?

이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썩게 하는 짓입니다.”





2020 의정부교구 약혼자 주말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대상: 예비 부부 및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19차 2/28 (금) ~ 3/1 (주일)
(접수중, 선착순 8쌍)

20차 5/15 (금) ~ 17 (주일)

21차 10/9 (금) ~ 11 (주일)

장소: 위로의 성모 수녀원 (성북동)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천주교의정부교구 가정사목부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

유사신앙종교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

첫째로, 그리스도 신자라는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말고,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세상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과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느님 나라(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음의 빛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무리 살펴봐도 복음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아니라는 말이라도 꺼낼 수 있어야 한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다면, 어찌 자신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느낀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내 삶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말과 소리, 사건과 사고, 인간관계,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의견과 소식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평가하며 판단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주님의 자녀다운 판단과 표현은 무엇인가 떠올려보고 그것을 스스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 우리 신앙을 살아가는 길, 곧 말씀, 전례, 성사, 기도, 실천의 다섯 가지 길을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한다. 성경을 자주 읽고, 미사를 포함한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하며 필요할 때면 병자성사를 청하고, 매

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웃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 말고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잘 살아가는 길이다. 이 길에서 가장 우선으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것은 기도이다. 세상의 말과 흐름, 유혹과 악에 맞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총이 절실히 필요하다. 꾸준히 기도하는 이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며,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자이며, 주님의 은총을 입는 자이다.

셋째로, 주님 안에 희망을 두는 것이다. 주님께 대한 희망,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좌 한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묵시 7,17; 참조 이사 25,8; 묵시 21,4)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희망'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한다. 그래서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현세적이고 즉각적인 것들에 매몰되지 않는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신앙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소리를 알아듣고,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알아챈다.

유혹은 더 교묘하게 다가와 우리를 흔들 것이다. 유혹이 닥칠 때면, 사도들처럼 외치라!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루카 17,5). 그리고 청하라!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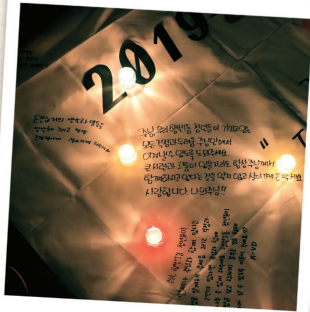
2019년도 의정부교구 5지구 청년들의 "1년"

- 신앙 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

안녕하세요! 저희는 5지구 청년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은총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1년 신앙 생활을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들의 다양한 신앙생활 기대해주세요!!^^

오지구 yo!



행신동성당 - 청년피정



5지구 청년 가을 운동회



원당성당 - 기도모임



신원동성당 - 전신자 체육대회



화정성당 - 청년여름캠프



교양동성당 - 밴드미사



능곡성당 - 성지순례

오지구 yo!

신비 안에 살다 (1)

음악 이야기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성탄의 신비’로 향하는 대림절의 여정도 이제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대림절에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가 있다면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는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는 오직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신학과 영성은 이러한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의 영성가인 예수회 소속의 원로사제 피에 판 브레멘 (Piet van Breemen) 의 묵상서 <신비 안에 살다 Im Geheimnis daheim>의 아름다운 서문을 인생을 ‘문제 해결’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 안에서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들은 가능한 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신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신비를 존중하고 경외하며 그 안에 머물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여러모로 문제적 존재이지만, 또한 신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문과 기술은 인간의 문제들을 풀어보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명상은 이와 다르게 가없는 신비에 인간을 개방하려 하며, 그 안에서 다 품어주는 것을 체험하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축복과 희망이 있는 고향을, 집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신비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신비는 하느님의 신비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요 더 내밀하신 분이요, 한없이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신비를 사는 인간은 그 자체가 신비가 됩니다. 우리가 신비 안에 머물 때 인생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두렵고 버거운 문제덩이가 아니라 매순간 새롭게 다가오는 신비가 됩니다. 때때로 힘겹게 느껴지는 인생의 사건들이 그 신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신비가, 하느님이 친히 우리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감지하게 됩니다.

인생이 신비라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시는 분은 누구보다도 성모님이십니다. 신앙인들이 즐겨 바치는 ‘묵주기도’ 곧 로사리오의 ‘신비’는 나의 인생이, 나의 존재가 신비라는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대림절에 정성껏 바치는 묵주기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우리를 신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잉태를 듣는 ‘성모 영보’의 장면이 아말로 인생을 신비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실존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까.

체코 출신으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주로 활동한 바로크 시대 작곡가 하인리히 이그나츠 프란츠 폰 비버 (Heinrich Ignaz Franz von Biber, 1644-1704)는 무엇보다도 바이올린 독주와 소박한 반주가 깃든 묵주기도 15단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로사리오 소나타>로 유명합니다. 이 곡은 적절하게도 <신비 소나타>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 첫곡인 “성모영보”를 들으며 신비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대림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다짐합니다. 🎵

YOUTUBE로 보기



하인리히 이그나츠 프란츠 폰 비버
(Heinrich Ignaz Franz von Biber)
<로사리오 소나타>중 “성모영보”



교구장 동 정

12월	15(주일)	11:30	견진성사 - 창현 성당
	18(수)	11:30	노인대학연합회 종강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19(목)	10시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20(금)		부제, 신학생 전체 야유회
	21(토)	19시	견진성사 - 신곡2동 성당



교구 소식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발급방법: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

필요서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본당 사무실 비치/매년제출) /발급시기: 2020년 1/15 발급 예정

※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넣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미제출시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당 사무실 방문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1회 제출)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31까지이며,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변경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군중후원회 감사미사

일시 12/19(목) 10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의정부시 신흥로265번길27)

대상 군중후원회원 및 관심있는 모든 분

미사집전 주교님과 의정부교구 군중사제단 및 군중후원회 신부

의정부교구청 사제숙소(비안네의 집) 주방직원 모집

대상 여0명, 세례 후 3년 이상

마감 12/20(금) 우체국 소인까지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접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3층 관리국

문의 031-850-1426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근무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171-2 (양주2동 성당 옆)

제9차 의정부교구 '선택주말'(CHOICE) 접수 11/17(일)~12/16(월)

일시 20. 1/10(금) 19:30~12(주일) 18시(2박 3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경기 파주시 소재)

대상 20세~39세 미혼 젊은이(선착순 40명)

참가비 1인 10만 원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https://cafe.naver.com/youthujb> 공문 참조)

2020학년도 신앙교육원 신입생 모집 / 의정부 본원, 오후반

수업 매주 화,목 14시~16시10분 / 2년제 4학기 / 매학기 4과목 15주간 수업

과목 성경 6과목, 교리 10과목

등록금 학기별 35만 원 문의 031-850-1546

두루미 생명평화기행 / 주상절리 및 유적지 탐방 포함

민통선 내 멸종위기에 처한 두루미 등 겨울 철새를 통해 생태의 소중함,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나눕니다.

일시 1/11(토), 2/8(토) 9시~18시

장소 임진강 유역 파주, 연천 일대

회비 1인 2만 원(선착순 40명 모집)

문의 환경농촌사목위원회 031-850-1492



미사 · 피정 ▶▶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안내

일정: 12/18(수), 14시
 장소: 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5(전화, 문자 가능)

교구 성령쇄신 봉사화: 성숙한 신앙의 여정

일시: 매주(금) 21:10~01:20시 마두동 성당 (12/20) /주제: 제3주-기도를 통한 성장
 강사: 박상근 시몬(안양대리구 회장)
 문의: 교구성령기도회 010-8729-0025

3·4지구 성령기도회 밤기도

일시: 12/18(수) 19:30~21:40
 강사: 장혜승 마리아(전국협회 번역실장)
 장소: 의정부1동 성당 /010-3790-0496

가정회복 은혜의 낫피정(고해성사,상담)

일시: 12/16(월) 13시~16:30(말씀,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송년피정: 12/27(금)~29(일)
 성경완독피정: 1/10(금)~18(일), 2/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올레,미사,기도,강의)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일시: 12/30~1/2, 1/6~8, 1/31~2/2, 2/11~13, 2/19~20

찾아가는 피정팀 예수수도회 모네편도

첫영성체 가족피정, 초종교, 청년, 교사, 자모, 전신자 피정(강의) 등
 방법: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피정
 문의: 010-7236-4627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강사: 구동욱 신부 /문의: 02-3276-7777
 일시: 12/18(수) 13:30~16:30
 장소: 예수회센터 /무료, 미사봉헌

[성심교육관]12월 2박3일 무료치유대피정

일시: 12/20(금) 22시~22(일) 15시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차량운행 수도자와 함께하는 묵주 100단 기도회
 매주 수요일 19:30~익일 12:30(미사)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요한 15,1) /석요섭 신부
 일시/장소: 12/20(금) 10시~13시 /예수회 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내용: 유기농 4종 효소의 기본영양 공급으로 부작용이나 공복감 없이 효소단식으로 독소, 노폐물, 체지방 등을 디톡스하면서 성체신심 세미나를 통해 성체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현존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영육간에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일시: 12/27(금)~30(월), 20년 1/3(금)~6(월)
 피정지도: 토마스신부(본원)
 장소: 성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피정비: 36만 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신 글라라)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해설 /심종혁 신부
 일시: 12/16(월) 13:30~16: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문의: 010-5054-4470 /무료, 미사봉헌

제주명현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1/13~15, 2/13~16(추자도)
 한라산눈꽃산행: 1/4~6, 1/17~19, 2/1~3
 연말연시: 12/29~1/1(일몰, 일출, 한라산눈꽃산행)
 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탄맞이 Monastay - Boun Natale!!

일시: 12/23~25(저녁기도로 시작)
 장소: 연천 착한외견의 성모수도원
 선착순 30명(2인1실) 참가비: 15만 원
 문의: 031-834-1262, 1263



교육 · 모집 ▶▶

운정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주임신부 추천서
 접수마감: 12/31(화) 까지
 문의: 사무실 031-949-9114

한마음청소년수련원 2020 리더캠프 모집

1/6(월)~8(수), 초4~6(비신청가능)
 1/20(월)~22(수), 복사단(중학생 포함)
 각 캠프는 대상에 맞게 별도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 참조 /문의: 031-840-0742

퇴계원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자격: 전례 및 지휘 경력자 우대
 서류: 교적증명서, 서류심사(이력서, 자기소개서)후 신부님 면접
 페이지여부: 유급 월 50만 원
 제출: eunajoy@hanmail.net(12/25까지)

의정부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대학생, 일반인(65세 미만)
 장소: 의정부성모병원내 동행안내 무인수납 외
 문의: 031-820-3473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11/11(월)~20.2/7(금) 우편신청가능
 문의: 02-745-8339

한양대학교 신학원(원서다온가능)

인천교구 지혜의 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교육
 장소: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샘 (032-343-1871) 교육관에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100단이 있습니다.

월: 전문 선교사양성반(www.jwisdom.or.kr 참조)

화: 요한 묵시록 / 수·경경통독 & 집합이 도형틀
 목: 묵요 찬양 치유 피정
 금: 성시간, 말씀 치유 철야 기도회 19시~4:30
 일: 말씀치유 낮기도회 / 17시 주일 미사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문의: 02-828-3600, 대상:15~30남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기간: 3월~12월(2월 예비학교)
 혜택: 교육비전액무료,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평균 취업률 93.3%)

카프성모병원 3교대 간호사 모집

서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중독연구재단』 산하 병원 /서류접수마감: 12/31
 홈페이지: www.karf.co.kr 참조

커피바리스타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주 1회 12주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
 http://club.catholic.or.kr/barista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ci.catholic.ac.kr

가톨릭신학의 체계적 교육
 <교리교육학과(주간) · 종교교육학과(야간)>
 2년 과정, 선교사자격증 수여
 만70세 미만, 세례 3년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신학심화과정> 1년 과정, 화~목요일 수업
 본원 교리·종교학과·통신과정 졸업생
 만70세 미만, 고졸 이상
 1/21(화)까지 접수: 02-747-8501

꽃동네대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총복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12/26(목) ~ 12/31(화)
 문의: 043-270-0100

서강대 외국어교육원 이탈리아어,스페인어 배우기

2020년 겨울학기 수업모집(1-2월 진행)
 개강: 1월 6,7일(8주 과정, 30시간)
 문의: 02-705-8081 <http://filec.sogang.ac.kr>
 이탈리아어: 원어민을 포함한 우수 강사진 / 왕초보, 초급, 중급, 고급, 독해, 회화반
 스페인어: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여행, 순례 스페인어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 /여행, 성지순례, 취미, 자격증 및 유학 준비생 대상
 장소: 서강대 외국어교육원(경의선'서강대역'앞)
 수도자는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로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20.1/31(금) 마감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12/26(목)~31(화)
 입학상담: 053-850-2580

한마음수련원 조리사 모집

모집분야: 단체급식 조리사 모집
 자격요건: 경력1년 이상, 한식조리사 자격증
 우대사항: 인근거주, 여성우대, 운전가능자,가
 툴릭신자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시스피나음악원 회원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준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주1회)

예수회센터 성경강좌(3월 개강)

영적성장을 돕는 성경 이해 <신설>
 매주(월) 10시~12시, 임숙희 박사
 영어성경 나눔: Luke's Gospel, Kister 신부
 (목) 18:15~19:15반, 19:30~20:30반
 성경 속 인물들의 영성1, 허귀희 수녀
 화요일: 10시~12시 토요일: 10시~12시
 성경대학: 요한복음1, 송봉모 신부
 둘째, 넷째(수) 14시~16:15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산자연중학교 진학예비학교 학생모집

대상: (현)초6, (현)중1
 일시: 1/7(화)~9(목)
 문의: 054-338-0530

안내 · 기타 ▶▶

말씀과 함께 하는 소빈녀 떼제 기도

12/21(토) 14시 문의: 010-5906-8099

골롬반성인과 함께하는 선교여행

대상: 만(19세~40세), 선착순 10명
 일시: 20. 4/8~14(1주) 장소: 제주 강정마을 등
 참가비: 25만 원, 마감: 2월 말까지
 문의(접수): 02-927-2705
 주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1/26 (설특집) 베트남 성모발현지 5일 145만 원
 2/3 터키-그리스 12일 392만 원
 2/10 스페인-포르투갈 10일 299만 원
 3/4 폴란드-체코-오스트리아 11일 355만 원
 문의: 02-2266-1591, www.cpbctour.co.kr

제6회 서울가톨릭국제미술대전 수상작 전시 <품다>

시상식: 12/20(금) 16시, 염수정 추기경님 시상
 전시기간: 12/20(금)~30(월) /전시장소:
 인사아트센터(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1-1)

늘푸른자활의집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www.green1004.or.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 원
 1/28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75만 원
 2/15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68만 원
 2/15 이탈리아 프랑스 11일 420만 원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일시: 20. 4/2 439만 원 /가톨릭 트래블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제19회 가톨릭평화방송 영어캠프

미국: 샌프란시스코부터 실리콘밸리와 LA까지
 국내 유일의 샌프란시스코 미국 영어캠프!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필리핀: 안전한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1대1 수업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가톨릭여행사 (문의 010-5235-3533)

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20 이스라엘 일주 9일 365만 원
 1/28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 원
 4/20 유럽4개국 3대 발현지 12일 375만 원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이스라엘,요르단10일 3/29 4/20 289만 원
 이스라엘9일 1/30 369만원 3/30 299만 원
 이태리일주9일 2/25, 3/12 279만 원
 스페인 포르투갈10일 3/4 299만 원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2/13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60만 원
 3/23 터키. 그리스 12일 370만 원
 3/27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70만 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21(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성빈센트드볼자비수녀회	12/24(화) 16시	수원본원 (빈센트병원 옆)	010-8833-8107

03 영성의 향기

외사랑과 짝사랑

김동규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7) “사랑하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상대방이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며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 들어”라고 너무도 쉽게 조언합니다. 정의와 사랑, 애정과 관심이 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가열찬 비난과 인격적 모독이 따뜻한 충고나 합리적인 비판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나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처음 가졌던 우리의 선의는 거부당했다는 서운함과 미움, 분노로 대치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사랑을 실천했고, 또 감미로운 사랑의 느낌을 받았다면 계명을 완수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나-중심’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자신의 의도대로 존중하려는 자기만족의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선행을 통해 상대방도 정말 사랑의 느낌을 받았는지(‘너-중심’의 사랑), 또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갈라티아 5,22)를 맺어주셨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하느님-중심’의 사랑).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라써(William Glasser)는 “사랑한다”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연인이 둘 다 사랑한다고 서로 고백하지만, 각자가 얼마만큼의 사랑을 충분하다고 여기는지 그 크기는 다른 것입니다. 적당한 애정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의 큰 사랑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가 하면, 더 많은 사랑을 주거나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소극적인 사랑에 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서로가 각자 필요로 하는 것만큼의 사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욕구와 자유를 묵살하는 폭력과 갈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은 단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상대방의 시선에서 함께 머물러는 의지로서 완성됩니다. 하느님 또한 우리의 모든 욕구와 자유를 헤아리시고 존중하시며 각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기도시간에 비해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느님만이 우리를 열렬히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받아주지 않기에 하느님의 ‘외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의 성취와 만족,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이용하면서, 마치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가 모르는 ‘짝사랑’처럼, 오랫동안 자신도 모르게 자신만을 짝사랑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이신 하느님을 끊임없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